

石堂 鄭在煥선생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안목

- 석당박물관 소장 고고미술사 자료를 중심으로 -

심 봉 근*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유적조사 |
| II. 기증유물 | IV. 구입유물 |

I. 머리말

石堂 鄭在煥선생은 1906년 11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에서 출생하여 1936년 일본 교토(京都)의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을 졸업한 이후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고 동아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등 법률·교육·행정 영역에서 우리민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각자로 역할하였다. 특히 동아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우리민족과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등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도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다.

석당선생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은 일본 교토 유학시절 국립교토박물관을 비롯하여 교토대학박물관·킨카쿠지(金閣寺)·기요미즈데라(清水寺) 등 일본 전통문화유산을 자주 답사·체험하는 과정에서 확대되었다고 짐작된다. 석당선생은 동아대학교의 총장 재임 시절, 『고려

* 동아대학교 전 총장

사』의 역주사업과 사학과의 강의를 위해 동아대학으로 초빙하였던 東濱 金庠基교수나 霞城 李瑄根교수와의 식사자리 대화에서 교토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주위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내용과 사찰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었던 것을 보면 리쓰메이칸대학의 재학 때부터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남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59년 미국 국무성의 초청으로 歐美지역을 교육 시찰하던 일정에서도 여러 대학의 박물관 견학을 놓치지 않았던 것도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동아대학교의 박물관이 오늘날과 같이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박물관으로 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석당선생이 구미지역 교육시찰 때의 관심과 열정이 촉매제가 되어 유물수집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석당선생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은 총장 재직 당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석당선생의 다양한 유물 수집방법 가운데 기증·발굴·구입자료로 구분해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II. 기증유물

석당선생은 다양한 주체로부터 유물을 기증받아 문화유산을 확보하였다. 경주지역에 거주하던 최선생은 동아대학교에서 박물관을 개관한다는 소문을 듣고 석당선생을 찾아와서 자신이 그동안 취미삼아 수집한 瓦當을 기증하겠으니 박물관 직원으로 채용을 위해 초창기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고구려·백제·신라·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와당이 기증되었고 수량도 적지 않았다.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된 와당의 대부분은 당시의 수집품이며 이 때의 기증을 계기로 석당선생은 와당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광화문의 지붕 잡상은 석당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모범 사례로 삼아 복원되었을 정도가 되었다.



[그림 1] 궐수문 막새(낙랑) [그림 2] 대당사부잡상

그리고 석당선생은 동아대학교의 영문과에 재임하여 퇴직하였다가 현재 고인이 되신 許文澤교수의 소개로 신석기시대 동삼동과 영선동패총 출토의 토기·석기·골각기 등 일괄 유물도 기증받기도 하였다. 이 기증 유물 가운데는 1975년 보물 제597호로 지정된 영선동패총 출토의 隆起紋土器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연결하여 동삼동·영선동·다대동·범방동 등 신석기시대에 형성된 패총유적이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다. 당시 기증된 유물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패전 이후 귀국길에 오르면서 부산지역의 지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던 것이다. 민족해방 이후 장시간의 유물 보관이 어렵게 되자 동아대학으로 가져온 사례이다. 주지하다시피 패총 유물은 토기·석기·골각기·패각 등 완형보다는 파편이 대부분이어서 고고학 전공자가 아니면 누구나 소장을 기피하는 유물이다. 그러나 석당선생은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해당 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흔쾌

4 石堂論叢 69집

히 받아드렸던 것이다. 1975년 보물 제579호로 지정된 용기문토기도 파편을 조립하여 완성한 것이며, 나머지 자료도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3] 용기문토기(보물 제 597호)

또한 동빈 김상기교수도 유물을 기증하였다. 김상기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동양사를 강의하였는데 동아대학교의 『고려사』 역주사업에 참여하면서 석당선생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서울대학교 정년퇴임 이후 사택을 정리하면서 평소 수집한 樂浪鏡을 비롯한 耳杯, 조선시대 서화류, 미술품 등과 같은 소중한 자료들을 모두 석당선생과 의논해서 동아대학교의 박물관으로 기증하여 소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 기증 유물은 당시 미진한 상태에 있던 낙랑 및 조선시대의 서화류 자료 보완에 일익을 담당하여 고고학과 미술사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가 기증 유물의 인수를 위해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와서 인수 결과를 석당선생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동빈선생의 거실에 있던 추사 김정희의 병풍을 거둬오니, 거실의 빈공간이 너무 허전

한데다가 우풍이 심해 선생님을 대하기 매우 민망스러웠습니다”라고 하자, 석당선생은 당장 석당박물관에 근무하는 于石 金鳳根선생께 전화를 걸어 병풍 한대를 준비하게 한 다음 필자에게 내일 다시 서울의 동빈선생 자택으로 가서 새 병풍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서울로 출장을 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으며, 놀란 모습으로 석당선생께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동빈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석당선생의 주변에 대한 사랑이 하늘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 4] 백자청화 운룡문향아리



[그림 5] 신수무늬 청동거울

아울러 동아대학교의 국문학과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康龍權교수의 소개로 합천 上川里 삼층석탑을 기증받아 1960년 동아대학교 구덕 캠퍼스의 박물관으로 옮겨오기도 하였다. 이 삼층석탑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 냇가 폐사지에 도괴되어 있던 塔材를 석당선생의 노력으로 동아대학의 박물관에 옮겨 복원하였다. 1972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이 석탑은 대병면 상천리 부락 주민들이



[그림 6] 1967년 삼층석탑 옆 석당선생

여름철 黃江의 상류에 홍수가 나면 강위에 다리가 없어 학생들의 통학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면소재지 출입마저도 어렵게 되는 등 육지가 고립된 인공섬이 되었다. 한국전쟁 중에 강용권교수가 대병중학교 교사생활을 잠시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맺은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날 대병면 주민대표들이 강용권교수를 찾아와서 상천리 앞에 현수교를 설치해 주시면 도괴된 석탑재를 기증하겠다는 것이었다. 강용권교수는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터여서 그 의견을 석당선생께 전하였다. 이에 석당선생은 석탑의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상천리 학생들의 통학이 더 큰 문제라 하시고 허락하셨다고 한다. 당시 현수교 가설비는 소 한 마리 값 정도였다고 한다. 상천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불교 미술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상천리 주변에 합천댐 수문이 설치되면서 폐사지에서 이설하지 못했던 地臺石과 上臺石 부분을 발굴해서 지금은 완전한 형태로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의 정원에 복원해 놓고 있다. 당시 석당선생은 석탑보다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통학이 어렵다는데 관심을 두었다고 전한다.

Ⅲ. 유적조사

석당선생은 적극적인 발굴조사의 참여로도 다양한 발굴자료를 수집하였다. 1969년에는 1981년 국가 사적 제273호로 지정된 釜山 福泉洞 古墳群의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주택신축을 위한 부지정리과정에서 古墳遺構가 확인되어 수습조사를 우리대학교 박물관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다. 당시 국내의 발굴조사는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재관리국 및 서울대학교 박물관 정도에서 가끔씩 실시하였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교비를 지출

해 가면서 발굴에 참여한 것은 오로지 석당선생의 발굴조사와 정확한 역사관 정립을 위한 자료수집에 대한 안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석당선생은 복천동 고분군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동아대학교의 경리과 직원을 현지에 상주시키면서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바쁜 일정에서도 틈을 내어 발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굴 현장인력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던



[그림 7] 부산 복천동 고분군 발굴 당시 석당선생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호까지 수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1975년 보물 제598호로 지정된 馬頭飾角杯의 한 쌍을 비롯하여 釜山 福泉洞 出土 金銅冠(보물 제1922호), 토기·철기·장신구 등 다양한 유물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국내외의 고고학전문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더욱 주목을 끌었던 것은 고분유구의 이전 복원 작업이었다. 석당선생은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도 소중하지만 유구 역시 역사·문화적인 가치도 귀중하다고 판단하고 출토유물과 함께 유구도 동아대학교로 이전·복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고분을 이전·복원하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의 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가 지난해 복천동고분군 원래 위치에 복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석당선생의 선각적인 판단이 아니었으면 해당 고분의 복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석당선생은 1974년 경상남도 고성읍 東外洞貝塚의 발굴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당시 고성읍 동외동에서 천도교 교회당의 부지정리 중 패각과 함께 청동기·철기·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경상남도 당국에서는 부산 복천동 고분군의 발굴 경험이 있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수습조사를 의뢰하여 왔다. 이 의뢰 사실을 석당선생에게 보고하였더니 발굴 기간과 경비에 상관없이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당부하면서 해당 발굴조사를 허락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야철지·석관묘·토광묘 등의 유구와 함께 각종 토기·철기·골각기 및 인골이 출토되어 다시 한 번 더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조사결과의 중간보고를 받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구를 현장에 보존하고 교회당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천도교 교단측에서는 동아대학교가 발굴한 결과로 발생한 일이니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서 당시 총장이던 석당선생을 찾아와서 해당 부지의 매입을 요구

하였다. 안타까운 사정을 경청한 석당선생은 고성으로 돌아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만류시켜 보냈다. 필자는 석당선생의 지시를 받아 고성으로 가서 해당 부지의 땅값을 알아보고 교인들과 협의한 이후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석당선생은 우리대학 학생들의 고고학 실습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구입하였으며, 교회당은 아



[그림 8] 마두식각배(보물 제598호)

래쪽에 새로운 터를 확보하여 건축하게 되었다. 해당부지는 1974년 12월 東外洞貝塚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는 분묘유구의 내부에서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화장해서 산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석당선생에게 보고하였더니, 석당선생은 한참동안 생각하시다가 태우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서 보관하다가 형질학 연구자가 생기면 그 때 자료로 이용하자고 지시하여 우리대학으로 이송하여 왔다. 한참의 시간이 경과한 어느 날 느닷없이 석당선생은 필자를 찾으므로 총장 집무실로 갔더니 동외동패총의 출토 인골에 대한 행방을 물었다. 이에 필자는 우리대학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자, 석당선생은 보존이 용이한 용기에 담아 구덕산에 묻어두고 뒷날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자고 제안하므로



[그림 9] 동외동 출토 청동기

방습이 가능한 용기에 넣어 구덕산에 묻어 보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석당선생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면서 문화유산도 발굴·보존하는 선각적인 업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고고학자들도 기피하고 전문연구자도 없는 상태에서, 발굴 인골을 먼 훗 날을 생각하여 보존하도록 조치하는 석당선생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은 일반인과 남달랐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1974년 동외동 패총 발굴조사 광경

IV. 구입유물

석당선생은 해당 유물의 구입으로도 문화유산을 확보하였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의 문화·기록유산은 현재 전국 대학 박물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장 문화·기록유산 가운데 2017년 10월 현재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19건과 부산광역시·경상남도지정 문화재 32건 등 총51여건이 국보·보물·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표1·2] 참조). 이들 국가·지방지정 문화재는 대부분이 석당선생의 수집·확보 유물이며, 漢林 鄭樹鳳 동아대학교 제2대 총장의 수집 유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석당선생의 수집품 가운데 중요한 유물은 주로 서울 출장 과정에서 구입하여 석당박물관으로 이전하여 보관하였으며, 민속자료를 비롯한 가벼운 유물은 석당박물관을 방문한 문화재 전문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

특히 이들 문화재 가운데 석당선생이 1962년 국보 제69호로 지정된 『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 1축을 인수할 때에는 구입배경을 ‘부산지역에 국보 한 점이 없는 것이 체면이 아니다’라고 주변에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 문화유산의 확보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위상도 심사숙고하였다.



[그림 11]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국보 제69호)

한편 석당선생은 2007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합천 해인사 소장의 『해인사대장경판 및 諸경판』 인출본 완질도 동국대학교와의 인연으로 구입·확보하여 현재 동아대학교 합진재에 보존되어 있다.

이처럼 석당선생은 다양한 경로와 인연으로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확보하였으며, 확보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위상도 배려하였다. 그러면서 석당선생은 해당 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좀처럼 구입하지 않고 상당 시간을 두고 검토하였다가 결정을 내렸다. 검토요소는 가격과 대학의 재정, 학술적 가치, 진품명품 여부, 역사·문화적인 전통성, 선사·고대·중세·근현대의 시기성, 장기보존의 가능성, 고고학과 미술사 연구자료의 형평성 등을 다양한 기준을 감안하면서 전문가의 자문과 추천 절차를 거쳐 심사숙고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동아대학 소장 유물의 현황·특징 파악과 함께 유물의 감별 역량과 학술적 지식정보가 풍부하게 갖추어졌을 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때문에 석당선생은 문화유산·기록유산에 대한 풍부한 지식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해당 유물을 수집하였으며,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석당선생의 풍부한 지식정보와 적극적인 관심은 한림 정수봉총장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한림선생은 동아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다양한 중요 유물들은 지속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합천댐 수몰지구 조사사업 과정에서 공중 촬영을 위해 공군헬기를 동원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조사인력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고성 송학동고분 발굴조사 때에는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하여 발굴현장까지 방문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림 12] 전 순정효황후 주칠나전가구 옆 한림선생



[그림 13] 1986년 합천 봉계리 발굴현장에서 한림선생

[표 1] 석당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순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시기	수량	지정년도
1	국보 제69호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조선	1	1962년
2	국보 제249-2호	동궐도	조선	1	1995년
3	보물 제569-6호	안중근의사 유묵	대한제국	1	1972년
4	보물 제595호	자수 초충도 병풍	조선	1	1975년
5	보물 제597호	토기 용기문 발	신석기	1	
6	보물 제598호	토기 말머리장식 빨간	삼국	1	
7	보물 제599호	쌍자총통	조선	1	
8	보물 제731호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1	1982년
9	보물 제732호	조대비 사순청경진하도 병풍	조선	1	
10	보물 제733-1호	현중가례진하도 병풍	조선	1	
11	보물 제863호	지자총통	조선	1	1986년
12	보물 제1522호	영산회상도	1565년	1	2007년
13	보물 제269-3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3	1422년	1	
14	보물 제1810호	황리현명 청동북	1085년	1	2013년
15	중요민속문화재 제277호	전(傳)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1930년대	4	
16	보물 제1921호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	삼국	40	2016년
17	보물 제1929호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조선시대	1	2017년
18	등록문화재 제41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1925년	1	2002년
19	등록문화재 제494호	부산 전차	근대	1	2012년

14 石堂論叢 69집

[표 2] 석당박물관 소장 지방지정문화재 현황

순서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시기	수량	지정년도
1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	삼한(초기철기)	1	1974년
2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	상천리 삼층석탑	고려시대	1	1972년
3	유형문화재 제57호	기영각 시첩	조선시대(1763년)	1	2004년
4	유형문화재 제58호	금강전도 12곡병	조선시대(19세기)	1	
5	유형문화재 제59호	동래 고지도	조선시대(19세기)	1	
6	유형문화재 제60호	대원군 초상화	한말	1	
7	유형문화재 제64호	대방광불화엄경 권40	조선시대	1	2006년
8	유형문화재 제75호	남지기로회도	조선시대(1692년)	1	2007년
9	유형문화재 제83호	대방광불화엄경 권41	고려후기(14세기)	1	
10	유형문화재 제101호	흑유호 및 흑유정병	고려시대(12세기)	2	2010년
11	유형문화재 제102호	분청 사기인화국화문 사이부태호	조선시대(15세기)	2	
12	유형문화재 제103호	갑인춘 친정도	조선시대(1734년)	1	
13	유형문화재 제104호	고려사	조선시대	75책	
14	유형문화재 제119호	석조관음보살좌상	여말선초	1	2012년
15	유형문화재 제120호	목조보살좌상	조선시대(17세기)	1	
16	유형문화재 제121호	시왕도	조선시대	2	
17	유형문화재 제122호	동계 화엄경변상도 경상	조선시대	1	
18	유형문화재 제123호	계사명 사리구	조선시대	4	
19	유형문화재 제124호	전(傳) 경주 출토 승사리구	조선시대	3	
20	유형문화재 제134호	진주성도	조선시대(19세기)	1	2013년

21	유형문화재 제135호	거제부도	조선시대(19세기)	1	2014년
22	유형문화재 제140호	청동북	고려후기	1	
23	유형문화재 제146호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조선시대(1604년)	1	
24	유형문화재 제180호	원수명 가족 투구와 갑옷 어깨장식	조선후기	1	2017년
25	문화재자료 제28호	변관식 필 영도교	1948년	1	2004년
26	문화재자료 제32호	미인도	조선시대	1	2005년
27	문화재자료 제54호	쌍구장경호	삼국시대	1	2010년
28	문화재자료 제55호	마문장경호	삼국시대	1	
29	문화재자료 제56호	전(傳) 이순신 초상	조선후기	1	
30	문화재자료 제72호	정선 필 청풍계지각	조선시대(18세기)	1	2014년
31	문화재자료 제73호	광포도	조선시대(18세기)	1	
32	민속문화재 제16호	수영야류 탈	1964년	16	2015년